

보이지 않는 손 (가제)

각본: 김재우

감독: 김재우

#1 어느 건물 아래, 주차장 옆 – 어느 날, 오전

화면이 밝아지며 시작되는 타이틀 시퀀스.

정감 있는 음악이 이어지면, 분수대에서 물놀이 하는 아이들, 가방을 매고 학원가는 학생들... 그리고 카페에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차례로 wide fixed로 보여진다.

어느 공원 앞 미세먼지 전광판이 보여지면... “미세먼지 나쁨”.

카페에서 앞 배달부가 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이어서 화면은 회사원들이 가득한 서울의 빌딩 숲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들려오는 무수한 전화 벨... 바쁜 사람들의 소리들.

하늘에서 구름 모이듯 보이는 타이틀:

보이지 않는 손 (가제)...

바쁜 소리를 어느 순간부터 압도하는 “배달의 민족 주문 !” 벨 소리.

그리고 빌딩 아래로 화면이 tilt down 하면, 두 남자가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화면을 넘기며 배달 주문을 찾는 수창 (28).

옆에선 똑같이 화면을 쓸어 내리는 영진 (27).

수창은 곧이어 지쳤는지 핸드폰을 끄고 선 영진을 힐끗.

영진이 넘기는 화면 속에는 단톡방이 보인다.

28명이 씬 없이 떠드는 단톡방.

훑어봐도 다들 자기자랑 하느라 바쁘고...

누구는 에펠탑에서 찍은 사진... 누구는 여신상 사진 등등...

이제는 영진의 얼굴이 보인다.

아니 꼬아 보이는 표정. 씩씩하다.

다시 영진과 수창의 wide fixed 의 두 샷.

영진: 인생 좇갓네...

수창: 뭘 그렇게 꼬라.

영진: 배부른 세끼들.

수창: 왜... 니... 그 전번에 말한 동창회 때문에 ?

#2 편의점 앞 – 얼마 후

찰찰거리는 소리가 가득하다.

폰 화면엔 벤츠 본넷 위에 팔짱 끼고 기대어 있는 한 남성이 보인다 (인스타그램).

(수창): 독고현지수? 성이 독고현? 이름 잣 같은거 빼고는 (찰찰거리며) 존나 성공했네.

수창이 건내는 폰을 돌려받은 영진.

영진: 재수도 존나 없고.

수창: 열심히 살았으니까 씨이오도 하고 그런 거겠지... 무슨 회사래 ?

영진: 몰라... 관심도 없고... 무역인가 ?

수창: 무역 ? 그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

영진: 배에 물건 넣고 존나 와리가리 치겠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씨발. 여건이 됐으면... 배달의 민족 ? 씨발 난 10개는 차렸어.

말 끝나기 무섭게 울리는 “배달의 민족 주문 !”

수창: (라면 뿜으며) ㅋㅋㅋ 개지랄. 니랑 나 같이 골초 8등급 따리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너 노력이라는 게 뭔진 아냐 ?

계속해서 들리는 “배달의 민족 주문 !”

영진: 입 존나 놀리네. 형은 현실에 안주하는 그거. 그게 근본적인 문제야.

전형적인 노예 근성. 그리고 형이 8등급이지, 난 7등급이었어.

수창: 그게 그거지 야발.

“배달의 민족 주문 !”

영진: 형 등급 차 퍼센티지 차이가 얼마 인줄은 아러 ?

“배달의 민족 주문 !”... 또 다시 울리면 밥 먹던 둘, 일어나서 치우지도 않고 욕하면서 헬멧을 쓴다.

#3 엘리베이터 안 - 얼마 후

화면 가득하게 보이는 흰 봉다리.

“배달의 민족” 영수증도 보인다.

짹짹거리는 소리...

비닐에서 감자튀김 3-4개 꺼내더니 입에 집어넣는 영진.
땡- 하고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짹짹을 멈추고... 사람들이 들어온다.
눈치 보는 영진.

#4 어딘가 – 얼마 후

노찾사의 *사계* 가 시작하면 함께 달려나가는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주문 !”
시작되는 “배달의 민족” 몽타주 시퀀스 !

#5 판자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려나가는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주문 !”

#6 오래된 빌라 동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나가는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주문 !”

#7 한강공원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려나가는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주문 !”

#8 잠실대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려나가는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주문 !”

#9 강남역 뱅뱅 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 - 점심

서울 시내,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몽타주 음악이 잠시 멈추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곧이어 정자에 앉은 영진의 모습으로...

Transition to:

#10 어느 정자 – 점심

잠시 앉아 쉬는... 것 같다가 다시
“배달의 민족 주문 !” 하면 일어나는 영진.
그리고 다시 경쾌하게 지랄하는 듯한 음악이 시작되고 !

#10 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앞.
“점검 중...”
영진... 비닐 봉다리 들면... 영수증에
“삼성아파트 44층”

(영진): 씨이이발...

#11 아파트 계단

Tilt up 으로 보여지는 계단.
한 없이 작아 보이는 영진.
한숨을 푹 쉬더니 올라가기 시작한다.

(손님 1): 출발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 식으면 책임 질 수
있어요 ?

#12 한 오피스텔 상가 앞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나가는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주문 !”

#13 한 원룸 앞

영진... 문을 쿵쿵 두드리며,

영진: 후 결제잖아요, 후 결제. 결제 하셔야 해요 !

#14 아파트 계단

헉헉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영진

#15 한 오피스텔 방 앞

헉헉거리는 영진의 숨소리가 방문 뒤의 남녀 신음소리로 오버랩 되고...
문을 두드리는 영진...

영진: 음식 왔어요 ! 후 결제 !

두드리는 소리가 커지면... 더 커져만 가는 신음소리

영진: 음식요. 음식 !!!

#16 아파트 44층

계속해서 이어지는 몽타주 시퀀스 음악과 함께,
다시 헉헉거리며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 44층.
이번엔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난닝구 바람 아저씨가 나오면...

손님 1: 아니 7시에 시켰는데 지금 몇시냐고요. 쌀국수는 니가 처먹으시고 !
어 ? 나 당신 근무태만으로 배민에 신고 넣을 줄 알아 ! 당신 조졌어.

현관문이 콧 ! 하고 닫히면...
잠시 서있는 영진.
몽타주 음악이 수그러들면,
후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Transition to:

#17 어느 회사 건물 아래 - 오후

다 불은 쌀국수를 흡입하는 영진.
멀리서 오토바이 하나, 천천히 다가온다.

수창, 플라스틱 용기 열어보면...
진짜 국물 하나 안보이는 쌀국수...

(수창): ... 씨발...

영진, 수창, 서로 쳐다 보면 어이없이 웃어댄다.

월남 쌈을 하나 집어 입에 넣는 영진.

영진: 오늘 얼마 나왔어.

수창: 4만.

영진: 4만에 3만원너치 쌀국수면

수창: 혜자지.

영진: 불어도 쌈 인정이지.

수창: 자취방은.

영진: 밀렸지. 다음달까지 미납하면 내쫓긴다.

수창: 그니까 코인 하랄 때 했어야 했어.

영진: 형이 들어가는 순간 떡락이야. 새가슴으로 하긴 뭘 해...

“배달의 민족 주문 !”

수창: 쉬지를 못해...

수창, 일어나서 용기의 면을 하수구에 버릴 때,

수창: 무친... 실화냐 ?

영진: ... ?

수창: 이거 봐바라.

수창, 폰을 영진에게 건네며,

영진: ...

수창: 여기 몰라 ? 미술렝. 얼마전 짱개 셰프 와서 유명한데.

영진: 시바 배달팁이 5만원?

수창: 니가 가라.

영진: ...?

수창: 월세 내야지.

영진: 뭐야 갑자기... 존나게 고마운데 ?

#18 미술렝 식당 – 얼마 후

화면 가득히 보이는 “미술렝 1스타” 상패.

식당 앞, 봉지를 바리바리 들고선 나서는데...

영진, 다시 뒤돌아선 조끼와 헬멧을 벗고...

셀카를 두어번 찍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나오면,
어색하게 서둘러 정리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영진.
미술랭 식당의 모습은 곧이어 영진의 폰 화면으로...

Transition to:

#19 고급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 얼마 후

영진의 폰 화면 속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미술랭 식당 사진.
“내가 즐겨찾는 맛집”...
딩- 하고는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어색한 영진의 모습.
넓게 이어지는 복도...
조용하다.

을씨년스러운게 귀신이 나올 것 같지만...
목을 빼꼼히 내밀고선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걸어가면, 계단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긴장감이 감도는 복도...
한발짝 내딛으면 탁탁탁 하며 집 앞까지 불이 켜진다.
저 멀리 현관문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온다.
전화 통화 소리도 들려온다.

#20 집 안

마침내 문 앞까지 온 영진.

영진: (살며시 문을 열며) 배달이요. 후 결제인데...

저 멀리서 통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집안은 유화, 아크릴 화... 그림들로 넘쳐난다 !
기이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영진은 집 복도를 계속해서 건너간다.
벽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그림들...

복도를 빠져나오면 거실 넘어 보이는 한강...
째깍 이는 시계 소리...

서울에 가득한 노란빛의 빌딩들과 차들이 마치 기계같이 째깍째깍 움직인다.
넋 놓고 서울을 바라보는 영진.
묘한 상실감과 경이로움... 분노일까...

거실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영진의 뒷모습.
화면 구석에서 검은 무언가가 보이는듯...
영진, 침을 꿀떡 삼킨다.
순간 영진의 어깨에 검은 손이 올라가는 !
놀라 뒤 돌아보는 영진.
아무도 없고...

순간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한 할머니.
놀라 자빠지는 영진.

할머니: 스테끼하고 랍스터 !?
영진: 씹빨 !!

#21 고급 아파트 앞

“TIP”이라 적혀있는 봉투를 열어 돈을 세기 시작하는 영진.
영진의 손에서 만원 지폐가 10번 넘어간다.

(수창): 10만원 ???

#22 편의점 앞

영진은 3만원을 쥐어 수창에게 넘긴다.
반짝이는 수창의 눈.

영진: 형 고마우니깐 삼십퍼센트 지분을 뽀개 줄게.
수창: 개-이-득... 예사롭지가 않아... 뭐하는 사람인데 존나 혜자냐.

수창이 앞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동안 편의점에서 또 다른 배달부 한 명 (영은, 26)
같은 테이블에 합석.

영진: 가니까... 분위기가 음산하니... 근데 뷰는 또 죽여줘. 한강이 짹-악.
수창: 아이씨... 갓길로 세지 말고. 근데 뭐.
영진: 복도 가-득 그림이 짹-악. 어? 미술관 창고처럼. 근데.

잠시 조-용 해지면...

음산하고 불길한 음악이 슬그머니 기어들어온다.

영진: (귀신 이야기 하듯이) 뭔가 싸- 하니... 긴장을 해서 그런가 ?
저벽-저벽 조심하 복도를 뚫고 거실로 나오는데...
부엌 쪽에서 슬금슬금. 뭔가가.
그래도 넉 놓고 이 큰 한강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유리창에 비친 내 다리가...

영진의 이야기를 듣는 수창과 영은의 눈은 미묘하게 반짝인다.
탁월한 전기수 다운 영진의 예술적인 강약 조절.

영진: 등골이 싸-해서... 그래서 수상해서 고개를... 툭- 내리면...
수창, 영은: ... ?
영진: 내리면... 다리가... 내 두 다리 사이에 검은 다리 하나가...
수창, 영은: !?!
영진: 그 순간 내 어깨로 보이지 않는 손 하나가 툭 !!!!!

갑자기 튀어 날라와 화면을 채우는 영진의 얼굴 !
놀라 자빠지는 수창과 영은.

영은: 깧- 오빠 !!! 개질색.
수창: 씹빨 존나 개시발 개씹빨탱탱부랄.

그리고 그걸 보고 킁킁대며 웃는 영진.

영진: 아니 씨발 킁-킁킁 존나 탱탱부랄 이 지랄.

씩을 듯한 표정으로 영진에게 훈제란 껌질을 던지는 수창.

수창: 넌 개새끼야 그게 돈 벌게 해준 형한테 할 일이야 그게 ? 뭐 ? 보이지 않는 손 ? 보이지 않는 손 지랄하네. 니가 진정 손맛을 보고싶은 거지 ?
영은: 오빠 때문에 밥맛 다 떨어졌어.

웃다만 영진의 표정은 억울하다.

영진: 영은아 아니 씨발 근데 진짜라니까 ?

수창,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눈빛이 달라진다.

수창: 개지랄 그만 떨고. 할머니 혼자 사는 거면... 이거 배달 5년차 선배로써
장담하는데, 이거 대어야. 재 주문 100퍼. 재 주문 반드시 들어온다고.

영진, 영은: 그래서 ?

수창: 내일 같은 시간에 대기 타자고. 우리 셋이 대기 까다가 주문 먼저 채가는
거야. 배달팁은 3 : 1 : 1. 배달 땀사람이 3 타가고.

부드러운 드럼 장단이 시작하면...

시작되는 "배달의 거지" 시퀀스.

들려오는 "배달의 민족 주문 !"

(수창): 예에에에에에에스 !!! 예에에에에스 !

Transition to:

#23 공원 - 다음날 점심-저녁 사이

수창의 말과 함께 화면을 가득 메운 미세먼지 전광판.

전광판에는 "미세먼지 보통"과 함께 보이는 😊 이모티콘.

이모티콘의 얼굴이 수창의 얼굴로...

Transition to:

#24 엘리베이터 안

화면을 채우고 있는 수창의 얼굴...

곧이어 입에 순살 커들렛 하나를 집어넣고...

딩- 하면 엘리베이터가 열린다.

#25 고급 아파트 복도

멍하니 서있는 수창.

#26 집 안

복도를 건너 들어오는 수창의 눈을 사로잡는 그림들.

(영진): 근데... 이 짓 언제까지 하는 거야 ?

고개를 돌려 무언가를 찾는 수창.

#27 편의점 (cu) 앞 - 점심

영은: 우리 말고 경쟁자 계속 늘어나서 이거 배달 타는 거 점점 힘들어지는데 ?

영진: 이대로 해도 나 이번 달 까지 월세 납부 힘들어.

계란을 소금에 찍어 한입 베어 무는 영은.

수창: 영진아. 순살 치킨 한 박스에 한 조각 없다고 뭐가 달라 ?

영진: 그게 갑자기 왜 나와 ?

(수창): 잘들어봐 영진아,

#28 집 안

할머니가 통화하기 바쁜 방문을 잠시 쳐다 보는 수창.

화면에 수많은 그림이 몽타주로 전환해가며 보여지면 들리는 수창의 v.o.

(수창): 집꾸석에 그림은 널리고 널렸어. 한 박스에 들은 순살 치킨 개수보다 그림이 훨 많단 말이야. 그니깐...

#29 치킨 집 앞 - 저녁

영은, 수창, 영진, 간만에 치킨 집 앞에서 치맥을.

수창, 포크에 치킨 하나를 찍어 들어 올린다.

수창: 하나만 집어 먹자. 이 말이야.

(영은): 요오올... 일종의 배달 팁 ?

#30 집 안

돌아보던 수창... 그의 눈을 사로잡은 건 작은 1호짜리 그림.

(영진): 그림 작은 거로... 주머니에 숨겨서 가져올 수 있을 만 한 거 있잖아.

(수창): 이건 어때 ?

#31 영진의 자취방

탁자 앞에 모여있는 영진, 영은, 그리고 수창.
탁자 위로는 보자기에 감싸져 있는 작은 그림이...
수창이 보자기를 짜잔! 하고 열면...
검은 점 하나 찍혀있는 그림이...

영은: 에게... 이거 얼마나 한다고.
영진: 직접 보니까... 이거 너무 작은데 ? 감동이 없어.
영은: 내가 점 찍어도 이거보단 잘찍는다.
수창: 씨발 뽀려와도 지랄.

영은, 잠시 생각하는듯 하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인다.

영은: 그냥 큰거 하나 낚자. 큰 그림... 이 참에 이 씨발 더러운 배달 바닥
뜨는거야. 계층간 사다리를 오르자고.
영진: 넌 닭 한 마리 시켰는데 닭다리 하나 만 오면 의심을 하겠어 안 하겠어 ?
씨발 어떻게 상체 만한 그림을 훔쳐.
수창: 아주 도른년이야 이게.

영은에게 slow close up 되가면,

영은: 아니 왜... 그 할매 맨날 통화 하잖아...

#32 고급 아파트 집 안, 방문 앞

영은, 방문에 귀를 대고 수그려 앉아 있다.

(영은): 귀가 먹었는지 스피커폰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길래. 들어보니까...
웬 가격 흥정을 하고 있는데, 한 아재랑.
(수창): 뭔데 ?
(영은): 거실 가운데 붙어있는 웬 여자 그림 있잖아.

방문에 수그리고 앉은 영은의 시선 끝으로 카메라가 PAN close up 하면,
거실 벽에 여자 그림이 하나 걸려있다.

(영은): 그게 얼마 줄 알아 ?

#33 영진 자취방

영은의 비장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수창, 영진: ???

#34 다시, 고급 아파트 방문 앞

방문이 뚫릴 정도의 큰 목소리가 들린다.

(할머니): 시방 적게 잡아도 8천이여 !!!

#35 영진 자취방

영진, 수창, 놀라 자빠진다.

영은: 그니까, 닭다리를 빼먹자는게 아니라, 닭다리를 바꿔치기 하는 거지.
몰래.

영진: 어떻게 ?

(안경녀): n 빵 해주는 거 맞지 ?

#36 어느 화방

핸드폰 화면이 보인다.

화면에는 고급 아파트 벽에 걸려있는 여자 그림.

화면을 내리면...

이젤에 앉아있는 모작.

옆에 앉은 안경녀 뒤로는 영진, 영은이 서 있다.

영은: 내가 인맥 하나는 죽여줘...

영진: 이거 그냥 완전 판박인데 ?

안경녀: 싸인. 내가 다른 건 다 배껴도 싸인은 못 배껴요.

뭔가 까먹은 듯 한 안경녀... 아차 싶더니 그림 오른쪽 하단에 싸인을 휘갈긴다.

영진: 뭐... 자기꺼 아니라고 막... 막 하는건 아니죠 ?

폰을 들고 화면을 확대하는 영은...

화질이 깨져 그림 구석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

(안경녀): 사진을 그따구로 찍으면 싸인이 보이겠어요 ?

(수창): 그림 이거 진짜 이대로 괜찮은 거지 ?

#37 뚝섬 한강공원 - 점심

수창과 영진, 편의점에서 술이 든 봉지를 들고 어디론가 걸어간다.

영진: 뭐가 ?

수창: 아니... 그림을 그렇게 모으는 인간이면... 딱 봐도 뭐가 찢인지 찌가인지 바로 알아보지 않겠냐고.

영진과 수창이 본인들 돛자리를 찾아 앉으면,

영진과 수창 따라서 카메라는 boom down, 영진에게 close up.

영진: 찢- 들어봐. 아니, 그 할매, 저번에 8만 천원 짜리 짱개 코스요리 시켰을 때. 내가... 10만 3천원 달라 했걸랑 ?

수창: 시-바알 이거 완전 개새끼네. 그래서 ?

영진: 근데 갑자기 봉지 영수증을 스윽- 들더니...

영진, 편의점 영수증을 들고...

Insert cut: 고급 아파트

화면을 가득 메우는 찡그린 할머니의 얼굴.

곧이어 영수증을 든 할머니의 손.

8만 1천원이라 딱-하니 적혀있다.

(할머니): ...

영진의 긴장하는 얼굴.

곧이어 할머니가 영수증을 내리면,

할머니: 맞네. 10만... 8천원 ?

Insert cut: 다시, 뚝섬 한강공원 돛자리

영진: 이 지랄 하는거임 ㅎㅎㅎ

수창: 씨히히히히바아 이래서 틀딱되기가 무서워.

배달 온 음식을 들고 돛자리에 합석하는 영은.

영은이 음식을 풀다 말고,

영은: 내가 배달했으면 한강공원 1구역 이라 하면 요기까지 바로 오는데...
직업윤리가 덜 됐어 아주.

수창: 도둑년이 직업 윤리 이지랄.

영진: 그 할매... 우리가 그거 흠친다고 망하고... 그러는건 아니겠지 ?

영은: 오빠. 그 사람들 ? 야부리 한번 털 때 우리가 하루종일 좆 빠지게
뺨끼둔거 천배는 더 벌겔 ? 우리가 씨발 다 벌어서 그 사람들
맥여주는거라니깐 ?

수창: 그래. 그림 존나 많던데. 그거 하나로 망할거면 금수저가 아니지.

영은: 그니까. 음... 거시 경제학적으로 바라볼 때. 원래 우리꺼 였던걸 다시
돌려 받는거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환급. 어 ? 하지만 약간의 이자를
걸들인.

영진: ... 그거 말 존나 된다.

#38 영진 자취방

다시 경쾌한 몽타주 음악이 개시되면,
본인 자취방에 화이트 보드를 끌고 들어오는 영진.
잘 세워놓고 일타 강사 마냥 강의를 시작하는 영진.

Insert cut: 고급 아파트 앞

영진, 인터폰을 ding-동 하고 누르면,
수창, 타이밍 맞춰 핸드폰 타이머를 누른다.

(영진): 자. 현관문이 열리고,

Insert cut: 고급 아파트 집 안

할머니, 짜증내며 전화를 끝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확- 열면서 등장.

(영진): 할매가 방문 열고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진, 핸드폰 타이머를 멈추면... 보이는 시간은...

(영진): 대략 15분.

Insert cut: 영진 자취방

영진 뒤의 칠판에는 월 ~ 금 까지의 메뉴 목록이 적혀 있고,
금요일은 “외출 ?” 이라 적혀있다.

영진, 허공에 무언가를 드는 듯 한 포즈를...

영진: 그니까 우리는 이 15분 안에 집 안까지 들어가서

(영진): 그림을 확 !

#39 고급 아파트 집 안

영진, 여자의 초상을 벽에서 띄어 내려고 하면 !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초상.

당황해서 이리저리 초상을 위로 밀어보고 옆으로 때어보고 하지만...

꼼짝 않는 초상.

영진: (속삭이며) 뭐야 시벌...

영진, 폰을 들어 보면... 곧 15분 중 10분만이 남아 있다.

복도 밖에서 공공 소리가 살며시 울려 퍼지면,

현관 밖에서 기다리는 영은, 수창,

영은: 뭐야... 왜 안 와...

수창: 내가 어떻게 알아 !

수창, 영진에게 카톡을 보내면...

다시 복도에서 킁킁거리는 영진의 모습.

이젠 아예 벽에 두 다리까지 올린 상태로 매미 마냥 매달려 있는 영진.

순간 부엌 쪽에서부터 느껴지는 인기척.

식탁 밑에서 뭔가 기어 나오는듯 하니...

흠칫 ! 하고 놀라는 영진.

돌아보는 영진이지만, 아무도 없는 거실.

순간 덜-컹 하고는 초상이 움직이는듯 하더니...

끼-익 하고는 초상과 함께 꼬꾸라지는 영진.
벽에 체인으로 걸려있는 그림이 축-늘어지면,
바닥에 닿기 일보직전에 멈추는 영진과 초상.

그런데...

거꾸로 매달린 영진의 시선 위로,
바닥을 네발로 기어 다니는 기괴한 검은 형체 !
놀라 바닥을 짚고 바로 일어나는 영진.

오감이 한껏 민감해진 영진의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폰에 흠칫 놀라는 한편 폰을 들어
올려보면...

-수창: 스님 안 나와 ?

하고선, 보이는 카톡 알림.
그리고 그 아래에는 4분에 가까워지는 스탑워치 !

두리번대다 그림을 체인에서 때어내면...
다시 느껴지는 인기척 !
현관에서 살금살금 달려(?)오는 수창과 영은.
그림을 두 명이 통나무 들듯이 들고 온다.
잠깐 놀라 몸을 부르르 떠는 영진을 보고
거실로 달려 들어오는 영은의 입 모양 - "씨발새끼".

영진은 진짜 초상을 들고 서둘러 현관 밖으로 나온다.
현관 밖 복도 옆에 잠시 놓아둔 초상.
무심코 바라본 여인의 모습은 매혹적인데...
싸인이 있어야할 오른쪽 하단 부분은... 싸인이 없다 !
표정이 굳는 영진.

시간은 점점 3분에 가까워져가고...
복도를 지나쳐 나오는 영은을 스쳐지나...
거실에서 곧 음식을 들고 할머니가 있는 방문을 노크하려는 수창을 멈춰 세우고 하는
영진의 말:

수창: 뭐야 너 안나가 ?

영진: 진짜는 싸인이 없다고 싸인이 !

수창: 뭐 씨발 ?

카메라는 그대로 벽에 걸려있는 가짜 초상으로 PAN.

민망한 자세로 쭈그려 가짜 초상 하단의 싸인을

황색 식당 냅킨으로 문지르고 있는 둘.

번지기만 하고 안 지워지는 싸인...

영진, 냅킨에 침을 뱉고서 다시 문지르면,

수창, 핸드폰을 들어 영진에게 타이머를 보여준다.

0분을 향해 달려가는 스탑워치 !

수창: 존나 더 비벼, 비비라고 !

영진: 기름이라서 안 닦이잖아 이쌌 !

빨라지는 문지르는 속도.

식탁 너머로 기괴한 그림자가 각기 춤을 추며 일어나는듯 한다 !

그리고 그 순간 열리는 방문 !

할머니: (앵앵거리는 목소리) 이 도둑놈의 쌍노무 췌끼야 !

거실에는 음식을 든 수창만이.

침을 꿀꺽 삼키는 수창.

(할머니): 썩불 염병할 췌끼가 어디 똥값에...

잠시 뒤로 보이는 초상...

누가 봐도 지워지지 않은 싸인.

할머니: 작푸를 사가려고. 그건 도둑질이야 쌍년아. 끊어 !

수창: ...

할머니: ... 열매여 ?

#40 어느 공원 - 아침

화면을 가득 메우는 건 미세먼지 전광판.

'0 ~ 30' 수치를 보이는 미세먼지.

곧이어 ☺ 표식이 보인다. “미세먼지 맑음”.
들려오는 밝고 경쾌한 음악 !
☺ 표식은 곧이어 영진 자취방에 걸려있는 여인의 초상 얼굴로...

Transition to:

#41 영진 자취방 – 같은 시각

여인의 초상.
그 어느 때보다 고귀하고 매혹적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막걸리와 파전...
한껏 물이 올라 아침부터 술판을 벌이는 3인방.

수창: 영은아. 넌 저거 팔아서 뭐 할꺼냐 ?
영은: 병-형신이야 ? 씨바 당연히 도지코인 놓지.
수창: 그건 당연한거고. 다 꼬라박게 ?
영은: 나머지 남은거 엄마한테 뺏선물 ?
영진, 수창: 요오오올
수창: 효녀네.
영은: 정품은 너무 비싸고. 짜가로다가.
수창: 쌍년.
영은: 솔직히 막말로 폰하고 지갑 너서 안흘리면 그게 다 뺏이지 시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천쪼가리 하나가 그렇게 비싸 ? 도둑 새끼들...
수창: 너 너무 취했다.

수창, 드러눕는 영은의 손에서 종이컵 뺏고는 무심코 영진을 바라본다.
영진 눈의 초점도 흐리다.
생각이 깊은 영진...

영진: 형...
수창: 어 ?
영진: 귀신 믿어 ?
수창: ... 또 그 지랄이야 ? 그 긴박한 순간에. 어 ? 온몸이 경직되고 오감이 민감한 그 순간에. 정신 병리학적으로다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뭔가를 봤다고 착각하는 거야.

영진: 그렇겠지 ?

수창: 그 귀신 어떻게 생겼어 ?

영진: ...

수창: 안 나지 기억 ? (웃으며) 흐흐흐 기억 날리가 없지. 본-적이 없으니까.
새끼야, 일종의 징크스 인거야. 징크스. 살기 각박한 이 시대의.

수창이 돌아서서 종이컵을 벌-컥 마시면,
영진의 타이트 샷.

영진: 그지. 징크스. 조까튼 징크스

수창: 근데 잠만 씨-바, 근데 저거 어떻게 처분해 ?

(영은): 우리 존나 미련해 터졌다...

#42 영진의 집 - 저녁

영진, 수창, 그리고 영은이 노트북 앞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모니터에는 당근 마켓 창이.
이것저것 누르다... 게시물을 올리는듯.

영진: (영은보고) 인맥 좋으신 너님이 파시던지요.

수창: 이거 보고 우리 따라오는거 아니겠지 ?

영은: 그 틀딱이 ?

수창: 그건 그렇다 쳐. 아니, 팔리긴 해 ? 말이 되냐고. 이 가격에 중고로 올리면. 누가 보고 몇 천을 내고 사겠냐고. 병신이 아니면.

영진: 연 거래량 1억 오천. 대한민국 중고마켓 사용 순위 1위. 당근마켓이야. 뭐든지 팔린다고. (수창을 보고)

영은: 씨바... 어떻게 팔지 대책없이 흥친게 미쳤지. 하... 안 팔린다에 내 손목을 건다... 팔릴거 같아 ? 여기서 ?

#43 영진의 자취방 - 밤

영은의 말을 가볍게 씹는 듯한 “당근 !” 알림 소리.
자고있는 영진을 깨우면, 영진, 일어나 폰을 확인.
화면에는 ‘독고노인 44,’ 당근 마켓 거래 제의.
“내일 저녁 직접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
서둘러 일어나 반쯤 감긴 눈으로... 채팅을 치는 영진.

점점 움직임이 둔해지고...
잠시 시간이 멈추는 듯 하면...
'크-헉 !" 하며 일어나는 영진.
땀 범벅이다.
목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다.

영진: 시바아아... (울먹이며) 으아아아...

다시 보이는 여인의 초상...
어둡다가 순식간에 밝아진 방 내부 (여인의 초상 time-laps).
초상이 벽에서 들어 올려져 제거되면,

#44 지하철 2호선

영혼 없이 썩한 눈으로 지하철 구석에 앉아있는 영진.
여인의 초상이 무릎 앞에 기대 있으면,
사람들은 이따금씩 궁금해 그림을 흘깃 엿본다.

#45 강남역 11번 출구 앞 - 해질 녘

사람들이 11번 출구 앞에 나란히 앉아 있고,
왼쪽 모퉁이에 소심하게 앉아있는 영진.
사람들이 입구를 나와 두리번 거릴 때마다 일어날 듯 말 듯 움찔거리는 영진.
사람들이 서로 짝을 지어 나갈 때마다 머쓱하여서 폰만 바라보는 영진.
얼마 후 옆 옆 자리서 흘깃거리다 눈 마주친 한 남성, 영모에게 다가가면,

영진: 당... 당근 ?

거래 남: 당근 ? 네. 네.

(거래 남): 고가이기도 하고... 워낙 예민한거라 이해 좀 해주세요.

#46 어느 공터 주차장 - 저녁

공터 주차장에 어느 벤츠가 주차되어 있고,
조명이 켜진 운전석과 조수석엔 각각 거래 남과 영진이 앉아 있는데,
거래 남은 비싸 보이는 돋보기를 들고 그림을 요리조리 살핀다.

(거래 남): 이게... 작가의 붓타치 그리고 색감 물감의 종류도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다 검사해야. 딱 나오는 거라서...

#47 벤츠 안 – 같은 시각

거래 남이 주저리 주저리 하는 동안 영진...
아직까지 전날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멍- 하다.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얼굴... 타이트 샷.

거래 남: 요즘... 미술 시장이 핫해요... 가격도 쪽쪽 오르고...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한테 주어진 계층의 사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작가 작품이
시장에 많이 풀리질 않아서 구하기 힘든 편이죠. 특히 이 작가는 싸인을 안해서
진품 가품 구분하는 것도 힘들어서...

영진: 예...

거래 남: (영진을 바라보더니) 저... 근데 왜 파시려는...

영진: 뭐... 개인적으로... 그건 됐고. 얼마 정도... ?

거래 남: 천... 이백 ?

영진: 예 ?

거래 남: 천 이백.

영진, 한 없이 적은 금액에 인상을 찌푸리고...

거래 남, 더 당당하게 밀어 붙인다.

거래 남: 제가 전문가라 화풍하고 붓 타치, 응 ? 그런거 보고 구별했지 싸인도
없는거 그냥 막무가네로 내놓으면 이백도 못 받아요.

영진: 그래도 올린 금액하고 차이가...

거래 남: 찻... 됐어요 그럼. 어쩔 수 없...

영진, 그림을 자신에게 돌려주려는 거래 남의 팔을 붙잡고선...

영진: 이천.

거래 남: 천 오백.

거래 남과 영진, 송금하려 폰을 들고있다.

거래 남: 성함이...

영진: 조영진이요.

거래 남: ... 조영진... ? 삼학년 이반 윤지상 쌤... 그 조영진 ?

영진을 알아보는듯 한 거래 남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영진,

영진: 지수냐 ? 독고현지수 ?

독고현지수 (= 거래 남): 조영진 ! 야 ! 씨바 존나 반갑다.

#48 어느 공터 - 얼마 후

다시, 벤츠가 딱-하니 보이는 공터.

실내등 조명이 켜진 내부가 보인다.

(영진): 존나 성공했다 너도.

#49 벤츠 - 같은 시각

벤츠 뒷 좌석에서 독고현지수 망원 타이트 샷.

독고현지수: 연세대그렇게졸업하고무역사업을하면서연봉이 10억넘긴하는데
삶이무미건조하게느껴져서... 그래서 미술 사업 시작했지. 근데... 님 뭐하고
사냐 ?

카메라가 영진에게 PAN 하면... 어리둥절하는 영진.

영진: ... 나 ? 뭐... 대학은 거시기 해도... 나도... 나도 뭐 사업했지. 식료품 유통
사업. 나름대로 성공해서 돈도 좀 벌고. 음식도 많이 먹고. 맛난거. (갑자기
근자감 뽕뽕) 요즘뭐배달도많이시키고하잖아?유통업계씨이오로써는완전웰컴이지.
호황.

독고현지수: 맞아... 인스타 보니까 미술랭도 다니고. 아주 살맛 났던데 ?

영진: 그치 ?

영진과 독고현지수, 형식적인 웃음을 하하호호 나누다가...

독고현지수: 아... 근데. 너 다음주 동창회 올꺼지 ?

영진: 어 ? 동창회 ?

독고현지수: 에이... 안 오면 섭섭하지...

영진: 어 그래... 가야지 그래. 가야지. 가야지... 가야 되나 ?

(영은): 씨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천 ? 이걸 너무 깎았잖아.

#50 편의점 앞 - 다음 날

영진, 영은, 그리고 수창,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소수 한잔.

영은이 쏘아 붙이듯이 영진을 몰아 세우면, 수창이 감싸는듯,

수창: 미술 거래 분야에 인맥도 없고... 흠친거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알잖아.

영은: 그래도 그렇지 존나 피 똥싸서 가져온 걸 그렇게 내다 버리면 어찌냐고.

개다가 친구라며. 그게 친구야 시바 도둑이지 ?

수창: 사백이 그래도 어디야... 도지 놓으면 떡상 할 수 있으니까...

영은: 하... 이천도 아니고 천 오백이 뭐야 천오백이...

영진: ... 씨이바 조깃네. 보자보자하니까, 일부로 그랬어 내가 ? 이 쌍녀나.

수창, 영은: ? ...

#51 공원 - 다음날 점심 즈음

다시 보이는 미세먼지 전광판...

⊗ 이모티콘과 보이는 “금요일: 미세먼지 나뽀”...

“배달의 민족 주문 !”

#52 어느 상가 건물 사이

뭉게뭉게 올라오는 담배 연기.

카메라가 BOOM DOWN 하면 영진이 폰을 들고 뉴스를 보는듯.

폰에 보이는 건 “20대 청년 또 자살... 기형화 한국사회”...

화면을 슥삭 쓸어 내리며 속독을 하다가...

“배달의 민족 주문 !” 하면,

영진: 간다 가 개새끼들아.

영진, 헬멧을 고쳐 쓰고...

“건배 !!!” 하는 소리와 함께...

Transition to:

#53 한 곱창집 - 어느 날

곱을 한껏 뿜어내며 익어가는 곱창.
치이익- 하며 익어가는 곱창을 정신없이 집어 먹는 사람들.
쌈에 싸서 아무지게 먹는 모습...
우걱우걱 먹는 모습이 돼지 같고... 역겨워 보인다.

윤정: 존나 오랜 만이야, 영진아. 연락해도 안받고... 도대체 넌 뭐하고 사는 거냐 ?

현수: 그래. 소식이 너무 업따.

따라서 곱창을 집어 입에 집어넣으려는 찰나 들어오는 질문...

영진: ...

윤정: 왜 대답을 안 하누.

현수: 우리에게 말 안 하는 거 섭섭하다 ? 뭐... 쪽팔리는...

영진: ... 사업해. 요식업 유통 사업.

현수: 오... 씨발 한 기업의 총수 ? (술에 꼬여버린 혀) 썬이오우 ?

영진: 뭐... 그렇게도 부를 수 있겠네... ?

윤정... 잠시 의심하는 눈치를 보면...

영진, 찔끔하는 듯.

영진: ...

윤정: 아~ ! 겁나 바쁘겠네. 그래서 연락이 안 된거고 ! 어 ? 퍼즐이 맞춰져 !
그치 ?

현수: 오... 그렇네. 존나 성공했음 이 새끼.

영진: 어... 그런 편이지...

복잡해지는 영진...

그러다 갑자기 술 취한 현수, 일어나서 소리친다:

현수: 씨-바. 야 애들아. 우리 반에서 존나 씨이오가 나왔따 !

영진: 야 ...!

사람들: 오오오오오오오울 !

현수: 씨바 누가 우리 8등급 따리 무시했어 ! 한 회사의 총수 ! 자랑스러운 씨이오 영진이가 건배사 간다아 ! 가즈아 !!

영진: 씨---

윤정: 영진, 영진, 영진 !

사람들: 영진, 영진, 영진, 영진 !

영진: 하...

사람들의 선동에 떠밀려 일어서는 영진.

사람들: 와아아아아아 !

영진: 어...

사람들: ...

영진: 건배사를...

사람들: ...

영진: 젊은 패기를... 삼학년 이반의 성공을 위하여... ?

사람들: 성공을 위하여 !!!!!

식당 밖에서 바라보는 동창회는 한편의 코미디.

이따금씩 불편한 눈치로 동창회를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54 곱창 집 - 얼마 후

다들 깹깹거리고... 몇몇은 드러누워 자고 있다.

아직 술이 덜 취한 영진.

옆에서 곱창을 깨작대는 현수를 붙잡고...

영진: 지수... 독고현지수는 안 왔냐

현수, 윤서: ...

영진: 씨바 나보고 쳐 나오라 해놓고 잠수 타네 씹세끼...

잠시 정적이 흐르다...

현수: 죽었어.

영진: ... ?

현수: 죽었다고.

윤서: 저번 주 금요일. 목매달고.

영진: ... 개소리야. 저번 주에 봤는데 ?

윤서: 너가 씨발 연락을 안받으니까. 장례식에도 못 부른 거잖아 피도 눈물도 없는 개새끼야. 성공하면 다야 ?

현수: 하...

영진: 왜... 왜 죽어.

현수: 빗만 육 억 이래. 육 억. 도지 코인 씨발 것.

영진: 개소리야. 무역회사 회장...

현수: 씨발 다 개 구라 라고, 구라 씨발. 연막이었 대. 무역회사 사장도 다 개 뺑이고, 타고 다니는 차도 렌터카에다가... 씨발 도지 코인 넣었다가 몰타기 당해서 영끌해서 다 꼬라박고... 개새끼들...

윤서: 개죽음 씨발.

영진: ...

윤서: 넌 안 넣었냐 ?

타이트한 영진의 얼굴... 충격과 분노... 그리고 끝 없는 패배감.

#55 공원 - 저녁

미세먼지 전광판.

⊙ 이모티콘...

“월요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

#56 어느 건물 아래 - 같은 시각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영진.

옆으로 오토바이 하나가 선다.

커피 빈 캔 커피를 건네는 수창.

영진: ... ?

수창: 조까타도 어떡하겠냐.

영진: 미안해.

수창: 난 미안할 거 없긴 한데, 그래도 미안하다. 동창회는 어땠 어.

영진: 좇까땀지.

영진, 커피를 받고선 히히적 웃는다.

영진: 형은. 어떻게 지냈어.

수창: 야발 저번 주에 도지 떡락한거 죄다 쓸어 담았다 희희희희.

영진: ...

수창: 너도 들어오지. 지금 존나 로켓상승이야. 아직 저점이라니깐 ?

수창, 한껏 빨간 불이 뜬 도지 코인 수익률을 보여준다.

영진: ...

수창: ... 싫으면 하지 마라, 하지마. 맨날 똥-하니... 넌 그렇게 계속 흠 수저로 살아라. 난 영엔 리치 될 꺼다. 으휴.

복잡한 영진의 표정.

멀미하는 것 같다.

“배달의 민족 주문 !”x3

수창: 염병, 쉬지를 못해...

영진: 형... 도지 코...

영진, 수창에게 무거운 말을 꺼내려 하면, 수창이 가로채서는:

수창: (폰을 들더니)... 영진아,

영진: ... ?

수창: 씨바 그 할매야.

영진: ...

#56 고급 아파트 앞 – 얼마 후

영진 타이트 샷.

열리는 문...

#57 아파트 복도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영진.

어딘가 모르게 극도의 긴장감이 느껴진다.

약간 열려있는 현관문을 살며시 더 여는 영진.

#58 고급 아파트 안

그림이 가득한 복도를 지나 살금살금 들어온다.

고민하다가 책상에 점 그림 (씬 31의 그 그림)을 아무렇게나 돌려놓고,

가만히 거실에 서있는 영진.

영진의 시선은 창 밖의 아름다운 서울의 경치.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영진 뒤로 보이는 여자의 초상.
무심코 뒤 돌아보면...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의 초상...
작품을 천천히 훑어보는 영진.

그러다 그림 오른쪽 하단을 보는 영진.
놀라는 영진.
싸인이 있어야할 모작의 오른쪽 하단부에는 싸인이 없다.
갑자기 흐르는 엄청난 긴장감 !
눈을 아무리 여러번 고쳐 떠봐도 싸인은 없다.
조용한 거실... 고조되는 긴장감.

그 순간 벌-컥 하고는 방문을 열고 나오는 할머니.
돌아보는 영진.

할머니: 열매여 ?

영진: ...

#59 고급 아파트 복도

좁은 복도로 보이는 현관문...
불이 열린 문틈 사이로 세어 나온다.
천천히 fade out 하면... 영화는 막을 내린다.